

독신가구의 경제생활: 그 경제적 함의와 대응

김 경 자(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산업의 발전 및 여성 고등교육의 확대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독신가구는 이제 새로운 그들만의 독특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주거영역을 비롯하여 식품과 여가, 가전제품 등의 영역에서 독신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활패턴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가계 소득이나 소비지출 패턴을 조사하는 통계청이나 노동부 등에서도 독신가구 집단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독신자들의 소득과 소비지출 패턴, 자산구조 등을 조사하여 그 실태를 기술한 이런 연구자료는 아주 유용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조사자료는 독신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구조, 월평균 생활비, 자산구조, 소득의 충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자산관리 및 노후경제준비 실태, 그리고 독신 소비생활의 편리성에 대해 기술적 통계치를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두 가지 결론이 독신의 경제생활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하나는 성별, 연령별 소득차이로 미루어 고소득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는 여성고등교육의 증가로 여성 독신가구가 앞으로 더욱 증가하리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케팅의 새로운 타겟으로 등장하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 독신가구는 남성 독신가구에 비해 피복비와 교육비에 많이 지출하고 외식비와 교육교양교제비에 더 적게 지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독신가구의 성별에 따라 시장수요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여성 독신가구의 경우 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보아 교육, 아마도 대학원 교육 등으로 비자발적 독신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독신자들이 외식을 많이 하고, 주택관련 부채를 많이 지고 있으며, 노후대비를 위해 주로 적금과 보험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외식관련 산업, 그리고 주택산업 분야에서 독신자들의 수요에 적

합한 상품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기혼자 가구를 모형으로 한 연금이나 보험상품을 주로 판매해 온 기존의 금융 및 보험 분야에서 독신가구용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른 몇 가지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하여 논의를 좀 더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고 본다. 우선 독신가구의 노후대비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카드사용이 과다하여 자제해야 한다거나 하는 결론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노후대비의 충분성은 소비자의 성향이 현재지향적인가 미래지향적인가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결혼계획이나 출산 및 자녀양육 계획에 따라 본인이 세운 기준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카드사용의 과다라는 것이 식료품비나 피복비, 교통통신오락비 등 생활비 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대출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만일 전자라면 독신가구의 문제는 신용카드의 과다사용 문제라기보다 과소비나 소비지출 구조의 왜곡에 대한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결혼제도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성별 분업제도의 하나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소득의 증가, 특히 여성소득의 증가가 독신여성의 증가를 가져오리라는 전망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하면 독신인구가 증가하듯이, 독신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독립을 위한 취업이 늘고 아울러 소득도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 앞으로 독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 이 두 요인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시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과 표본, 표집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고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조사결과를 일반 독신가구에 일반화하는데 다소 조심스럽다. 소득과 소비지출 자료를 보면 조사대상자들이 소득수준이나 성별 등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나 통계청 조사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표본의 차이인지 또는 측정기간이 다른 데 기인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한 분석이 조사대상자의 직업과 교육수준, 그리고 주거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행해졌으면 독신가구의 경제전반에 대한 보다 유용한 자료가 되었으리라고 본다.